

吐血의 原因 症狀 治法 治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

구 원 희 · 문 병 순 · 김 세 길

I. 緒 論

吐血이란 血液이 口腔을 通하여 나오는 것으로서 出血의 一種이며 現代의으로는 肝硬化 胃十二指腸潰瘍, 胃底靜脈破裂 등으로 因한다³⁶⁾.

內經에서는 區血이라고 하였고, 楊²⁾은 吐血이라고 하여 嘔吐血을 서로 區別 하지 않았으나, 李¹⁴⁾는 成碗有聲爲區 成盆無聲爲吐라고 하여 量의 大小와 聲의 有無 등으로 區別하였다. 그러나 現代에는 區血 吐血을 區分 하지 않고 吐血이라 通稱하고 있다^{4,5,8,12,18,19,27,32,34,36)}.

吐血의 種類에는 內衄 肺癰 傷胃 등 세가지가 있는데 內衄은 대개 過勞 飮食過傷에서 오고, 肺癰은 飮酒後에 毒熱이 胃中에 쌓였다가 吐血하는 것이고, 傷胃는 大飽한 後에 胃를 차게 하면 煩悶하는데 강제로 吐하게 되면 吐物이 胃부에 熱傷하여 吐血이 된다 하였다.

吐血의 原因에는 火, 飮食過多, 七情, 陰虛, 外感, 勞傷, 瘀血打撲, 咳嗽 등이 있는데 根本的 으로는 火(熱)로 因한다 할 수 있다.

吐血의 治法에는 清熱瀉火 化瘀止血 瀉肝清胃 涼血止血 溫中健脾 益氣攝血^{31,33)} 順氣¹⁵⁾ 등이 있으며 吐血의 治方으로는 犀角地黃湯 十灰散 四生丸 茯苓補心湯 人參救肺湯 등이 있다.

吐血은 形勢가 급하여 빠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治療에 指針이 될 수 있는 分類가 重要하다. 그러나 吐血에 대한 諸家의 說이 多樣하고 또한 差異가 있다. 이에 著者는 吐血 對하여 歷代文獻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黃帝內經>

陽氣上逆 陽熱中盛 肝氣逆上
肺脈瀆爲 嘔血 肝脈大甚爲 內癰

<金櫃要略>

飮酒過傷
酒客 必 吐血 此因 極飮過度 所致也
柏葉湯

<巢氏緒病源候論>

飮酒過傷 大虛損 勞傷 傷寒熱毒
勞傷於 臟腑 臟腑損傷 血則妄行 胸膈氣逆則
吐血
肝心二臟傷 血流散而不止 氣逆則出血
柏葉湯

<千金方>

勞傷 飮酒過傷
飮食大飽後 胃冷 不能消化 便煩悶 嘔吐血
黃土湯 生地黃湯 犀角地黃湯

<太平聖惠方>

心肺積熱 思慮憂愁 大虛損 勞傷
吐血有 三種 一曰內衄 二曰肺癰 三曰傷胃
氣血不和 思慮憂愁 結滯於 胸膜之間 損傷於
肺肝心之臟則 血流散
吐血不止也
寸口脈微而弱 氣俱虛則 吐血 關上脈微而芤 亦
吐血 伏龍肝散 紫蘇散 艾葉散 地榆散 松花散
紅花散

<三因方>

七情 飲食 房勞 打撲傷
莖血留聚膈間 滿則吐溢
五苓散 除濕湯 桂枝括萎湯

<婦人良方大全>

七情 飲食 六淫
氣血外行於 經絡 內行於臟腑 所損傷 行失常道
逆則吐血也
柔脾湯 四生丸 犀角地黃湯 薑草湯 生地黃散
如聖散 三因茯苓補心湯
麥門冬飲子 十全大補湯 六味丸 補中益氣湯

<聖濟總錄>

心肺蘊熱 大虛損
吐血有 三種 一曰內傷 二曰肺癰 三曰傷胃
羚羊角湯 薑地黃湯 五通散 阿膠散 神效金朱丸
藕汁散

<普濟良方>

肺中積熱

<東垣十書>

邪熱 脾胃虛弱
心氣不足 邪熱人 不足而客之
救肺湯 麥門冬飲子 人蔘飲子

<仲景全書>

飲酒過多 憂思過度
火盛而 逼血上行者 吐血
三黃瀉心湯

<醫學綱目>

極陰過度 肺虛極

<丹溪心法>

勞傷 陽盛陰虛
勞傷肺胃 吐血出於胃 陽盛陰虛 火升上出
四生丸 藕汁散

<醫學入門>

陽(飲食積熱,大怒氣逆上) 陰(勞力上氣)
熱者 四生丸 山梔地黃湯 鷄蘇散 古島連丸
虛者 三黃補血湯 加減四物湯 古參柏糊 狗膽丸

<醫宗必讀>

上盛下虛
治 順氣

<證治要結>

濕毒 打損於血 胃傷

<醫家心法>

火
瘀血而吐 四物湯加 桃仁 大黃 丹皮 香附
傷寒失血 固元湯
寒冷瀉瀉之劑 -土瀉金衰

<東醫寶鑑>

火 勞傷 飲酒過傷 飲食大飽
成益無聲者
實者 犀角地黃湯 虛者 小建中湯 加 黃連
葛黃丸 三黃瀉心湯 茯苓補心湯 人蔘救肺湯 大
飲子 蓮心散
是齊白朮散 天門冬湯 四生丸 黑神散 側柏散
藕汁散 七生湯
清熱解毒湯 花 石散 五神湯 拘膽丸

<醫宗損益>

勞傷 飲酒過傷 飲食大飽
三黃補血湯 犀角地黃湯 鎮陰煎 三黃瀉心湯 茯
苓補心湯
清熱解毒湯 七生湯 花藥石散

<醫門寶鑑>

勞役過多 嗜慾無節 五志之火妄動
陽盛則身熱 陰盛則身冷
實宜 涼血行血 虛宜補益歸元
犀角地黃湯 七生湯 花藥石散 小建中湯 加黃連

<醫學心悟>

瘀血 火 陰虛 風寒

四生丸 十灰散 花 石散

咳而喘息者(加味香蘇散) 口渴自汗而吐者(益元散)

乾咳 脈數大(三黃解毒湯) 陰虛(四生丸 十灰散 地黃丸)

陽虛(花 石散 四君 八珍) 肝火(逍遙散) 氣衰(四君子湯)

<張氏醫通>

怒火傷肝

脇痛 血苑於上

<石室秘錄>

因,火盛

目痛 口舌生瘡 吐血

用 寒涼之藥 治火熱

<傅青主男女科>

因,陰虛 大怒 火盛 久病

陰虛吐血 清胃火 不必止血 六味地黃湯

大怒吐血 解血平氣湯

火盛吐血 涼藥以瀉火

久病吐血 補元氣

<辨證奇聞>

因,火上升

火絲湯

肺心腎三經兼治

<簡明傷寒論>

打撲傷

<六科準繩>

飲酒過多

<醫學衷中參西錄>

因,虛弱 外感 勞心過多 飲酒過度

隋證加減

<醫貫>

吐血 多起于 咳嗽

六味地黃湯 人參救肺湯 理中湯

<清代名醫醫眼大全>

咳嗽甚

<中醫學問答>

因 胃中積熱, 面紅 口臭 脘腹灼熱 便秘 大便黑色 舌質紅

治 清熱瀉火 化瘀止血 十灰散 加減

因 肝火犯胃 出血量多 血鮮紅 口苦目赤 眩暈 耳鳴 心煩 失眠多夢

治 瀉肝清胃 涼血止血 龍膽瀉肝湯加減

因 脾不統血 面色蒼白 心悸 四肢不溫

治 溫中健脾 益氣攝血 歸脾湯 加減

<韓方病理學>

因,胃中積熱 肝鬱化火

治火

<韓醫學 臨床病理>

因 胃中積熱, 面紅 口臭 脘腹灼熱 便秘 大便黑色 舌質紅

治 清熱瀉火 化瘀止血 十灰散 加減

因 肝火犯胃 出血量多 血鮮紅 口苦目赤 眩暈 耳鳴 心煩 失眠多夢

治 瀉肝清胃 涼血止血 龍膽瀉肝湯加減

因 脾不統血 面色蒼白 心悸 四肢不溫

治 溫中健脾 益氣攝血 歸脾湯 加減

<東醫肝系內科學>

勞傷 飲酒過多 飲食大飽

內衄吐血 胃中 不安 大吐瘀血

實者 三黃瀉心湯 虛者 茯苓補心湯 人參救肺湯

肺癰吐血 毒熱滿悶

葛黃丸 側柏散

傷胃吐血 胃冷 腹痛煩悶 理中湯 是齊白朮散

<東醫小兒科學>

熱 勞傷 勞傷

發熱煩躁 胸悶咽乾 小便赤熱

犀角地黃湯 挑仁承氣湯 四物湯 救肺散

<中醫內科學>

胃中積熱, 肝火犯胃

大便秘結. 口苦 協痛 善怒

寫心湯 十灰散 逍遙散

III. 考 察

吐血의 原因에는 火(熱) 七情 飲酒過多 陰虛 勞傷 外感 瘀血 咳嗽등이 있다. 이 중 火(熱)에 因한 것은 內經 素門 厥論에서는 陽氣上逆이라고 하였고 至眞要大論에서는 陽熱中盛이라고 하였으며 陣^{5,8,9,14} 등은 心肺積熱이라고 하였고, 高^{17,18,20,24,25,35} 등은 火라고 하였으며, 특히 李¹⁴는 吐血은 火病이며 비록 痰을 挾했다 하더라도 火를 治療하면 血이 止한다 하였다. 七情으로 因한 것은 內經 靈樞의 邪氣臟腑變形論에 肺脈이 瀦하거나 肝脈이 太甚하여 肝氣가 逆上한다고 하였고, 陣^{5,11} 등은 思慮憂愁라 하였고 李^{14 21-24} 등은 忿怒로 因한다 하였으며, 周²⁰는 嗜欲無節이라고 하였고, 陣⁷은 七情으로 因한다 하였다. 飲酒過多로 因한 것은 楊^{2-4,11,12,18,19,27,34} 등은 飲酒過傷이라고 하였고 陣⁶은 飲辛熱이라고 하였다.

陰虛로 因한 것도 巢^{3,5,12} 등은 大虛損이라고 하였고, 周^{13,21,24} 등은 陰虛(陽盛)이라고 하였고 高¹⁷는 上盛下虛라 하였으며, 趙²⁰는 陽氣復消 腎氣逆上이라고 하였다. 外感으로 因한 것은 巢³는 傷寒熱毒이 五臟에 瘀積하여 吐血이 된다고 하였으며 戴¹⁶는 濕毒이 經絡을 鬱하여 吐血이 된다고 하였으며 鄭은 風寒燥火 傷暑 등으로 表現 하였으며, 張²⁸은 虛弱하여 熱毒이 侵入하여 吐血이 發한다 하였다. 勞傷

으로 因한 것도 巢^{3-5,20,34} 등은 勞傷이라고 하였고, 朱¹³는 勞傷犯胃라고 하였으며, 李¹⁴는 勞傷傷氣라 하였다.

咳嗽로 因한 것은 心肺煩欬라 하였고 葉³⁰은 咳嗽가 甚하여 發한다 하였다. 瘀血(打撲傷)으로 因한 것은 程^{21,31} 등은 瘀血로 因한 것 이라고 하였고, 戴^{16,26}는 外傷으로 吐血이 된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이 吐血의 原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七情으로 因한 것은 思慮過多로 怒氣가 逆上하는 것이며 飲酒過多로 因한 것도 毒熱이 胃中에 쌓였다가 逆上하여 吐血이 되는 것이며 陰虛로 因한 것도 陽盛하여 된 것이며 外感으로 因한 것도 濕毒 熱毒등 熱(火)로 因한 것이며 勞傷으로 因한 것도 肺胃가 損傷하여 血이 逆上하는 것이며 咳嗽로 因한 것도 火가 逆上하여 吐血이 發하는 것이고 瘀血로 因한 것도 祛瘀降火를 兼해야 한다고 하여 火와의 關係를 말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原因이 있으나 內經의 諸逆上衝 皆屬於火 라는 理論에 비추어 볼 때 吐血의 原因은 火로 因한다 할 수 있다.

吐血의 種類에는 內衄 肺癰 傷胃등 3가지가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千金方에서 引用한다 하였으나 筆者의 考察로는 千金方보다 약 70年 정도 앞선 巢氏緒病原候論에 最初로 記錄되어 있으며 後에 千金方 등에서 引用하고 있다.

吐血의 治法에는 楊^{31,33} 등은 清熱瀉火 化痰止血 瀉肝清胃 涼血止血 溫中健脾 益氣攝血이라고 하였으며, 李¹⁵는 順氣라고 하였으며, 특히 李¹⁴는 吐血은 火病이며 비록 痰을 兼했다 하더라도 火를 治療하면 血이 止한다 하였다.

吐血의 治方 으로는 犀角地黃湯 四生丸 三黃瀉心湯 生地黃湯등 退熱하는 處方이 代表方이며 그외에 黃土湯 五苓散 除濕湯 十全大補湯 六味丸 補中益氣湯 藕汁散 花石散 清熱解毒湯 五神湯 龍膽瀉肝湯 柏葉湯 등이 있다.

IV. 結 論

以上과 같이 歷代文獻을 調査 分類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吐血의 原因에는 火(熱) 七情 飲酒過多 陰虛 勞傷 外感 瘀血 咳嗽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內經의 諸逆上衝 皆屬於火 라는 理論에 비추어 볼 때 吐血의 原因은 火로 因한다 할 수 있다.

2. 吐血의 治法에는 清熱瀉火 化瘀止血 瀉肝 清胃 涼血止血 溫中健脾 益氣攝血 順氣등이 있다.

3. 吐血의 治方 으로는 犀角地黄湯 四生丸 三黃瀉心湯 生地黄湯 등 退火하는 處方을 主로 使用 하였다.

즉 吐血은 主로 火(熱)로 因하며 그 治法및 治方도 清熱을 爲主로 한다.

參 考 文 獻

1. 精校黃帝內經 東洋醫學研究院 1985 素門 P169-172 P308 靈樞 P36-49 P260-264
2. 楊宏仁編 金匱要略重編 世一書局 1951 P138-140
3. 巢元方, 巢氏緒病原候論 昭仁出版社 P143 208
4. 孫思邈 千金方 杏林出版社 1974 P175
5. 陳超遇 太平聖惠方 翰成社 1977 PP121 - 126
6. 陳無擇 三因方 翰成社 1977 P327-328
7. 陳白明 婦人良方大全, 文光圖書 有限公司 P 22
8. 宋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 1232-1241

9. 朱樓 普濟良方 翰成社 1981 P1710. 李東垣 東垣十書 大成文化社 1983 P191-192
11. 張仲景 仲景全書 醫道韓國社 1975 P178
12. 樓英 醫學綱目 南北一出版社 1971 P22
13. 朱丹溪, 丹溪心法 夫餘, 大成文化社, 1982 P 398-406
14. 李梴 醫學入門 大成文化社 1981 外集卷二 P151-155 P341-343
15. 李中梓 醫宗必讀 綜合出版社 1944 P347
16. 戴元禮 證治要訣 醫部全錄 P1124-1125
17. 高鼓峰 醫家心法 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3 P57-58
18.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6 P108-109
19. 黃道淵 醫宗損益 醫藥社 1976 P72
20. 周命新 醫門寶鑑 杏林書院 1974 P77-78
21. 程國彭 醫學心悟 友聯出版社 1961 P154 - 155
22. 張璐玉 張氏醫通 金藏書局印行 1961 P573 - 576
23. 陳士鐸 石室秘錄 杏林出版社 1982 P205
24. 傅青主 傅青主男女科 大成文化社1984 P41
25. 錢鏡湖, 辨證奇聞全書, 甘地出版社, 1980 P190
26. 難知 簡明傷寒論 大成文化社 1980 P11
27. 王肯堂 六科準繩 上海齊齊書局 1982 P180
28. 張錫純 醫學衷中參書錄 河北科學技術出版社1985 P32-38
29. 趙獻可 醫貫 人民衛生出版社 1980 P41, 44, 63
30. 葉天社, 清醫名醫醫眼大典, 正文書局, 1940 P17
31. 楊醫亞 中醫學問答 人民衛生出版社 1985 P96
32. 韓方病理學 圓光大 病理學教室 1985 P42 - 44
33. 韓醫學 臨床病理 北京 中醫學院 成實社 1983 P296-297
34. 金定濟外, 東醫肝系內科學, 集文堂, 1983

P17 2 -175

35. 丁奎滿, 東醫小兒科學, 杏林出版社, 1985
P270
36. 黃文東 外, 實用 中醫內科學, 一中社 1986
P526 .
37. 上海中醫學院 中醫內科學 商務印書館1975
P142-143